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성경: 사도행전 2장 29-41절

Tag: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

천이나 더하더라 (행2:29-41)

사람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이 이율배반적이다.

사람은 모두 결국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이게도 모든 사람은 감성적으로 죽음을 낫설어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생존본능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며, 바라며 기대한다(감성적). 그러나 이율배반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믿지는 않는다(이성적).

*감성과 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자.

세상 만물은 생사에 대한 본능은 있어도 죽음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본능적으로 죽음에 순응할 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사람만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감정이 예민하며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도 선불리 순응하려고 하지 않고 마지못해 순응한다.(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저항한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영생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만 영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영생본능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이 아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루며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겨 내셨다. 제자들에게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다. 두 번은 즉흥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 하셨다.(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그러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사건이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으로 받아들였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도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부활을 예고한 것을 잊지 않고(믿지도 않았지만-시체를 훔쳐갈까 봐) 군사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은죄가 많아서 부활할까봐 덜덜 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기대하거나 예측했다는 기록은 없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고, 직접 그 상처를 만지고 부활 후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 까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정할지라도, 여전히 부활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고,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거나 믿거나 확신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었다. (예수의 부활이었지 나의 부활은 아니었다.)

그러나 승천하신지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자신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탄생은 곧 부활사건에 대한 확신으로 축

말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곧 성령강림 사건이다.

오늘 말씀은 성령강림 직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복음 설교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고, 핵심 키워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의 2-3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 가르침이 기억나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다윗의 오른손에 힘을 주시므로)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예수님)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 31절)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8-11)

이 시편에는 인칭대명사가 현란하다.

-다윗과 하나님 두 인격체에 대한 인칭대명사만 가지고 문법을 따지면 헛갈리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나 베드로의 해석대로(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을테지만) 세 인격체에 대한 인칭대명사라면 문법적으로 헛갈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윗과여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신령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의 시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셨다. 그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의 시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1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 110:1) -오늘 본문 35절.

(시편 해석)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막12:35-37)

이렇듯 구약의 영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 초점이 있다. 인류의 구원은 애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회복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비로소 성취한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원래의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회복 하셨으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 주셨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성령 받은 무리들인 셈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믿으면 비로소 우리에게서 영생의 DNA가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영생의 스위치가 켜진 자들이다. 그것

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죽음은 단지 영생의 문일 뿐이다. 마치 곤충이 탈을 벗고 새롭게 거듭 나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탈을 벗고 영생을 취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Tag: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4:2)